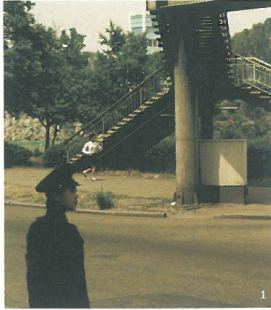


THE FOUR ARTISTS

July, 2016 | JEONG GEUNAE

ART

EDITOR JEONG GEUNAE COOPERATION MMCA



THE FOUR ARTISTS

올해의 작가상 2016 후원작가 4인

〈올해의 작가상 2016〉전이 오는 8월 31일부터 12월 25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다. 전시될 작품을 미리 볼 수는 없어도, 어떤 후원작가들이 선정되었는지는 미리 보면 좋겠다.



- 1 BL-#011, Digital print, 111x178cm, 2005
- 2 RW01-001, Digital print, 127x169cm, 2004
- 3 Blow Up, Misashin Gallery, Tokyo, Japan, 2011
- 4 Utopia-#032, Digital Print, 220x527cm, 2011

레디메이드 픽처

백승우

다양한 분야의 작업을 통해 표현하는 요즘의 현대 예술가들과는 달리, 백승우 작가는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한 이후 계속해서 사진 작업만 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한 우물만 파며 얻은 전문지식과 기술, 사진이라는 매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오히려 사진을 거스른다. 기술 발달로 인해 아마추어도 얼마든지 사진을 찍어낼 수 있으며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이 확산되어 각종 이미지가 다 소화하지도 못할 만큼 넘쳐나는 시대다. 사진이 갖고 있는, '순간의 포착'과 '피사체를 기억하는 방법'이라는 전통적 의미는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백승우 작가는 누구나 비슷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사진작가로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한다. 그는 '오리지널'이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하다면 차라리 불필요하다고 여기고, 사진 속에서 코드화되는 이미지의 의미를 교란시키거나 지워버린다. 대신 익숙하게 여겨질 수 있는 이미지에에서 거리를 두어 작품을 보는 이 스스로가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미지는 작가의 손에 의해 인용, 발췌, 연출되며 모호해짐으로써 관습적으로 부여받는 해석으로부터 탈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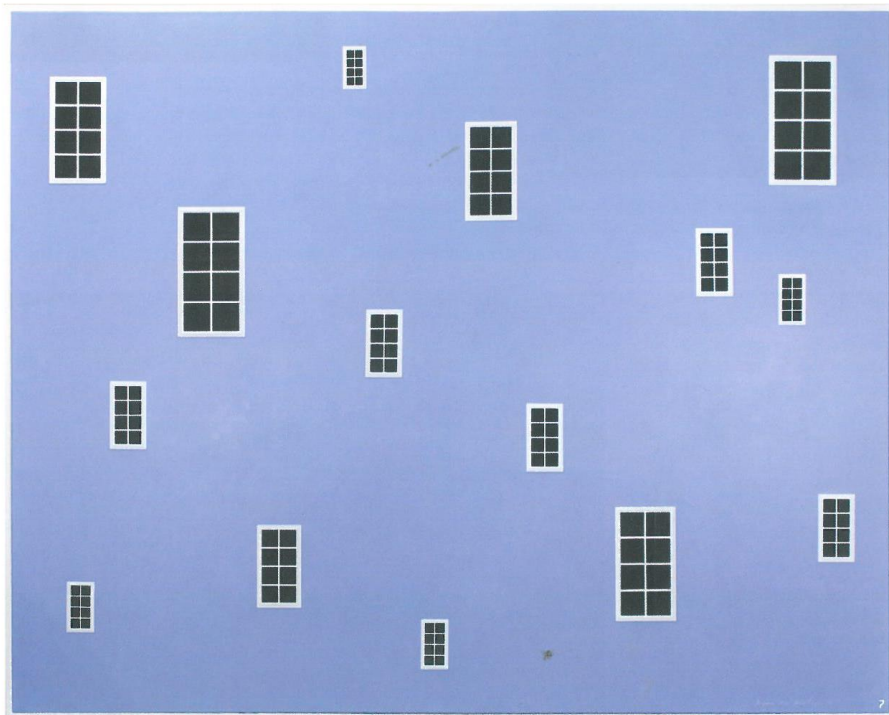




존재의 근원을 탐색하는 드로잉

김
은
연

금속공예를 전공한 김을 작가는 금속 디자이너로 일하던 때에도 마음속 한구석에 회화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 전업작가의 길을 걸으면서, 그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듯 진요하게 그림을 그리며 결핍을 채워나갔다. 그래도 그의 목마름은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는 것 같다. 작가는 드로잉을 통해 존재의 근원을 탐색하고자 하는 그의 의식 세계를 보여준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은, 분명히 알 수는 없어도 각자의 의미와 서로 간의 관계성을 지니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존재와 그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작가는 온갖 것을 다 그리고 만든다. 작가 스스로도 자신의 작품을 '잡화적'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그의 이미지는 방대할지언정 현학적이거나 복잡하지는 않다. 순수하다 못해 배와 살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듯, 날것 그대로의 이미지다. 아니, 그 직관적임을 감안하면 이미지가 아니라 언어라고 불려야 할까. 소박하면서도 명료하고 꾸밈없이 정직한 그의 작품은 회화를 갈망하면서도 반(反)회화적이다.



5
Discovery, Mixed media,
221x122x46cm, 2010
6
Untitled, Mixed media,
122x366x15cm, 2011
7
Beyond the Painting,
Mixed media,
187x231x15cm, 2013



8 Waterfall, Acrylic on wall, Dimensions variable, 2013



9 Protected Tree in Danger of Being Submerged-Trees for Public Services; a Site where Living Rocks Placed, Naeseongcheon, 2013



10 Plants the Evolve (in some way or other), Two channel video, 10min 21sec, 14min (each), 2013

11 2th MDF-Maseok Dongne(town) Festival, Maseok furniture complex Burnt factory,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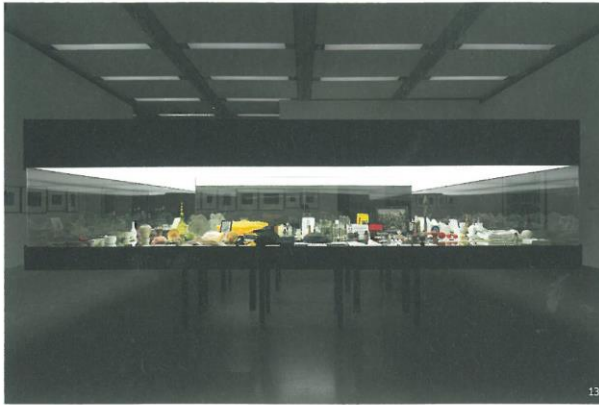
부재와 부유에 관한 이야기

믹스라이스

믹스라이스는 앙철모, 조지은 듀오로 구성된 예술 공동체다. 믹스라이스는 현대사회에서 부재(不在)하는 것과 부유(浮遊)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현대사회, 특히 한국 사회는 국제화 흐름 속에 급속한 산업화와 기계화로 '개발병'을 앓고 있다. 매일 새로운 것이 유입되는 한편 유입된 것 혹은 원래 있던 것이 땅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사라지거나 이방인이 되어 떠돌아다니다게 되는 사회다. 믹스라이스는 사진, 영상, 만화, 벽화, 출판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재하거나 부유하는 '타자들'에 대해 말한다.

사회가 품지 못하고 게워낸 존재들에 대해 말하지만 믹스라이스의 시선은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다. 그들은 소외된 존재들과 같은 선상에 서며 눈높이를 맞추고 소통한다. 불안정한 생활을 영위하는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연극을 진행하거나 그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할 수 있는 페스티벌을 열어 그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해 진파하는 식이다. 형형색색의 비유기 물질을 통해 말 그대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으나 개발 풍토에 버티내지 못하고 사라진 식물들을 애도하기도 한다. 믹스라이스의 작업은 이주노동자와 식물의 이야기를 일종의 유희를 통해 전하며 한국 사회의 현 상황을 응시한다.





12 Honey Banana, Installation View at Gwangju Biennale, 28min.4sec. DVD Projection, LCD Monitors, Banana Box, Vinyl, Ladder, Shovel, Bricks, Glass, Soil, Wood, 2006

13 Museum Display 2000-2010, Installation View in Museum Moderner Kunst Stiftung Ludwig Wien, Stolen Objects, Plexiglass, Wood, Florescent Light, Mirror, 4.5x4.5x2m, 2010

14 What You See Is the Unseen-Chandeliers for Five Cities, Installation View at Kukje Gallery, North Korean Hand Embroidery, Metal, Wooden Frame, Middleman, Anxiety, Censorship, 2015

15 Abstract Weave-Morris Louis Series, Installation View at Leeum, Samsung Museum of Art, North Korean Machine Embroidery, Collected World Internet News Articles, Middle Man, Anxiety, Censorship, Tassel, Wooden Frame, 2014

대담한 비행을 통한 미래링

함경아

그 어떤 커다란 일이 이 사회에 닥치더라도 거기에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은 결국 개인이다. 어쨌든 개인들의 인지와 감성에서 의미 부여가 시작되기 마련이고, 그게 틀을 통해 커져야 사회적 의미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회적 의미는 다시 개인들에게 전파되며 더욱 견고해진다. 함경아 작가는 사회와 개인, 즉 자신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자신의 개인적 경험이 사회를 인식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도. 그래서 주관적 관찰과 표현을 통해 사회의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 말한다. 개인에게 다시 돌아와 영향을 줄 그 불합리한 심리만상을 말이다. 다만 드러낼 뿐, 논평하거나 분석하지 않는다. 분석과 논평은 작품을 시작할 때 그녀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다. 작품 이후의 그것은 보는 이의 몫이다.

함경아 작가의 작품이 재미있는 것은 그녀가 국가적, 문화적, 윤리적 경계를 넘나들며 반항적이고 대담한 비행(飛行)을 통해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사실 때문이다. 출치고, 뒤쫓고, 뒤지고, 몰래 접촉하며 만든 작품들은 보는 이에게 약간의 탄식과 함께 묘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위협하지만 집요하게 주관적 경험과 자신에게 던진 첫 질문, 사회 현상을 돌아나간다.

